
통독 후 15년간 동독 공공도서관의 정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East German Public Libraries after Unification during 15 Years

노문자(Moon-Ja Ro)*

【초 록】

본 논문은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된 이후, 15년(1990~2005)동안 동독 공공도서관이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정착해가고 있는가를 연구하였다. 먼저 통일 전의 동독 공공도서관의 체계와 운영, 통일 전 동서독 공공도서관을 비교하였다. 동독 공공도서관이 서독 공공도서관으로의 흡수된 후, 동독 공공도서관의 구조 변화, 공공도서관과 노조도서관의 폐쇄, 공공도서관장서의 변화(폐기와 교체)가 있었다. 새로운 환경인 자본주의 경쟁체제 하에서 동독 공공도서관이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들의 정체성을 찾아 가는 과정 등이 연구되었다.

【키워드】

독일통일, 동독 공공도서관, 노조도서관, 도서관 장서변화, 도서관 정체성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how public libraries in East Germany adjusted themselves into new environments after the unification during 15 years(1990~2005). First, system and operation of East Germany's public libraries are studied and public libraries in West and East Germany are compared before the unification. After public libraries in East Germany became unified with West Germany, the structure of East Germany's public libraries changed, many of public libraries and labor libraries were closed and collection in those libraries was discarded or replaced. Thus, it is studied how libraries enhanced their capabilities and discovered their roles or identities in changing situations in this research.

【Keywords】

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East German Public Libraries, Labor Library, Change of Library Collection, Library Identity

1. 서 론

우리가 독일통일의 역사적 경험에서 한반도 분단의 관리와 통일을 위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독일지도자들은 역사적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동서독 통합작업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상당한 시행착오를 경험하였다. 형식적이고 구조적 통일은 이루어졌을지 모르나 독일 내에서는 아직도 내면적, 실질적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한 세대가 지나야 진정한 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우세하지만 정작 통일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마음의 장벽은 그대로 남아있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있으며, 심지어 동서독 경제적 차이는 실제로 대물림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독일의 도서관계는 통일 이전에도 프랑크푸르트와 라이프찌히 국립도서관간에 국가서지 발간을 위해 서로 오랜 기간 동안 협력을 해오는 등 우리와는 다른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독 후 도서관계 역시 혼란한 상황을 피할 수는 없었다. 특히 한 국가의 문화지수를 나타내는 공공도서관계의 변화는 그 폭이 매우 심하였다. 동독 공공도서관은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경쟁력을 우위에 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동독 공공도서관은 그들의 도서관 서비스의 개념부터 변화시켜야 했다. 과거의 것을 버리는 경험은 동독 공공도서관의 역량을 집중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와 함께 필연적

* 송의여자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lomj@sewc.ac.kr)

으로 그들 도서관의 정체성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

동독 공공도서관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전해온 독일도서관계의 경험은 우리도 분명 가까운 혹은 먼 미래에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통일 전의 동독 공공도서관의 조직구조와 그 당시 서비스 상황을 알아보고, 통일 후 15년간의 변화와 현상을 여러 문헌을 통해 고찰하였다. 이 논문은 남북한 통일 후,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공도서관의 상황과 문제해결을 위한 준비과정의 하나로 연구되었다.

2. 통일 전 동독 공공도서관

2.1 동독 공공도서관의 개념

동독 공공도서관은 서독과 마찬가지로 교양, 오락, 지역사회와 주민의 지식 개발에 기여함으로써 주민의 평생교육, 정보, 문화생활의 향유에 목적을 둔다. 그러나 동독의 공공도서관은 명칭에 있어서 서독과 차이를 보인다. 동독의 공공도서관은 영어권의 Public Library와 같은 독일어의 Oeffentliche Bibliothek이 아니라 1968년 도서관법에는 국립일반도서관인 Staatliche Allgemeinbibliothek, 일반교육도서관인 Allgemeinbildende Buecherei, 1971년 도서관법에는 지역학술일반도서관 Wissenschaftliche Allgemeinbibliotheken des Bezirkes 등 사용되는 명칭이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명칭들은 내용적으로 보면 미국이나 서방세계의 공공도서관이면서도 여기에 이념교육이 가미된 전인교육의 기능을 추가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동독 공공도서관의 명칭은 레닌의 러시아혁명 이후, 만민의 평등, 자본주의와의 투쟁, 문맹퇴치에 대한 처방으로 과거 소련의 만인도서관(Massavaja biblioteka)에서 유래했다고 보여진다(Marwinski 1990). 이러한 명칭은 근로자와 청소년들의 문화학습 이외에 정치 교양의 학습장소인 북한의 공공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군중도서관과 흡사하다(송승섭 2009). 북한의 군중도서관 역시 과거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동독 공공도서관은 이러한 과거 소련의 공공도서관을 모델로 40년 이상 발전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동독의 다양한 공공도서관 명칭(국립일반도서관, 일반교육도서관, 학술일반교육도서관)을 넓은 의미로 편의상 한국과 미국의 공공도서관과 같이 동독 공공도서관이라 칭하였다.

2.2 동독 공공도서관의 체제

서독의 철저한 지방자치 행정체제와는 달리, 동독은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40년 이상 중앙 집중형 행정체제 국가였다. 동독은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 체제 하에, 2차 대전 후 폐허로부터 지속적인 안정 성장을 해오면서 대표적인 사회복지국가 실현을 이상으로 삼았다. 동독 공공도서관은 전면적인 국가 주도로 개발된 사회주의적 통합교육제도에 기초를 두고 성장을 계속하였고, 통합교육제도는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도서관에 핵심을 두어 그 결과 도서관도 교육시스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하였다.

동독도서관은 관중에 따라 공공도서관, 학술도서관, 노조도서관으로 구별된다. 이 세 도서관 유형을 관찰하는 중앙행정기구도 서로 다르다. 공공도서관은 문화부 산하 공공도서관 중앙연구소(Zentralinstitut fuer Bibliothekswesen: ZIB), 학술도서관은 총무처 고등교육부의 학술도서관전문연구센터(Methodisches Zentrum fuer Wissenschaftliche Bibliotheken), 노조도서관은 자유 독일노조연맹의 도서관업무위원회에서 관장해왔다.

2차 세계대전 후, 동독 공공도서관은 소련 점령국의 관할 하에 속하여 실질적으로 도서관 재건에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분단된 동독은 전쟁 이전의 도서관과 도서관의 장서로 유지되어 왔다. 그 결과, 초창기에는 전쟁 이전의 전통적인 도서관 유형인 공공도서관과 학술도서관으로 구별되어 도서관이 운영되었으나, 점차적으로 공공도서관에는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동독 공공도서관은 국가 정책차원의 제도적 장치로 설립되었다. 동독 공공도서관은 국가 주도하에 권역별 협력망을 기초로 한 중앙집중식으로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어왔다. 이는 군·소단위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한 통합적인 시스템이다.

특히 1968년 도서관법의 국립일반도서관의 의무사항에서 강조된 점은 어린이와 청소년도서관을 위한 도서관 업무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도서관서비스는 어려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회주의적 인격형성과 자아실현에 지대한 영향이 미친다고 강조되었고 이러한 관점은 1971년 도서관법의 5번째 시행령에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도서관은 교양, 교육, 평생교육, 학업, 직업교육과 실습에 필요한 자료, 미적 감각과 일반교양에 필요한 자료, 수준 높은 의사소통, 오락과 창조적인 여가시간 활용에

필요한 자료를 공급함으로써 성인, 청소년, 어린이들의 사회주의 의식화와 사회주의적 인격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선도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동독 공공도서관은 전국적으로 긴밀히 연계된 도서관망을 계층적으로 구축하였다. 동독 공공도서관망의 중심에는 1968년 도서관법에 의해 국립일반도서관(Staatliche Allgemeinbibliotheken)이 있으며, 1971년에는 지역학술일반도서관(Wissenschaftliche Allgemeinbibliothek des Bezirkes)이 추가되었다. 동독 공공도서관망의 근간을 이루는 동독의 국립일반도서관 또는 지역학술일반도서관에는 다음과 같은 도서관 그룹이 속해있다.

- 최소행정단위인 읍·면·리도서관
(Gemeinde Bibliothek)
- 위의 도서관을 관할하는 지방중앙도서관
(Laendliche Zentralbibliothek)
- 군청소속도시의 시립도서관
(Stadtbibliotheken Kreisangehoerigen Stadten)
- (시·읍·면)상위행정구역의 시립도서관
(Stadtbibliotheken in Stadtkreisen)
- 시·군립도서관(Stadt- und Kreisbibliotheken)
- 시·구립도서관(Stadt- und Bezirksbibliotheken)

동독 공공도서관망은 최소 행정단위에서부터 시작되어 한 단계씩 더 높은 행정 단위의 피라미드 형태로 좁아져가는 계층적 구조로 구축되었다. 동독은 과거 주(州) 단위의 행정단위를 해체하여 14개 지역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었다. 1971년부터 지역학술일반도서관은 새로운 행정구역의 학술도서관센터이며 이 센터는 여기에 하위 단위 도서관들의 공동 업무방침을 지도할 책임이 있다. 1971년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학술일반도서관의 과제를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도서관이 맡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점진적으로 시립도서관이 해당 지역의 주립도서관이나 지역학술일반도서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모든 14지역에 지역일반학술도서관을 설립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역 내 기존의 시립도서관이 해당 지역의 도서관망의 지휘 책임을 가진다. 또한 시·군립도서관은 최소 단위규모 도서관의 행정 책임기관이다. 이러한 시·군립도서관의 과제는 지역도서관망에 연결된 모든 도서관을 위해 자료를 구입하고, 이에 따른 도서관 업무를 중앙집중식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6~7개의 읍·면을 단

위로 하는 지방중앙도서관은 상위 도서관의 조정과 지휘를 받는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구축된 동독 공공도서관망은 노조도서관, 어린이도서관, 학교도서관, 요양소도서관, 병원도서관, 형무소도서관등과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따라서 동독 주민은 전국적으로 구축된 도서관망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Marwinski 1990).

2.3 동독 공공도서관의 지도관리

동독 공공도서관의 행정 책임기관은 문화부이다. 문화부 내에는 도서관 실무자들로 구성된 도서관자문위원회가 있다. 서독의 공공도서관 재정은 지방자치제하에서 지방세로 지원되지만 동독의 공공도서관은 중앙행정부 중심의 국고에서 지원되었다. 모든 문화관련 시설의 재정, 즉 지역사회에서 시의회, 군의회, 읍·면 단위까지의 재정 할당 책임은 문화부에서 관할한다.

동독 공공도서관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전문연구기관은 1950년 설립된 ZIB이다. ZIB는 동독 공공도서관의 분류표 개발, 도서관 이용자 연구, 공공도서관의 분석, 홍보, 장서수집을 위한 자료수집, 도서관장서의 홍보지침서 발간, 이용자 요구 분석, 도서관 이용자 통계, 공공도서관 사서의 계속교육과 훈련을 책임지고 있다(Marks 1987). 특히 ZIB는 70년대 들어서 공공도서관의 ‘장서구성 지침서’를 발간하는 주요 업무를 맡기도 했다. 장서구성 지침서는 도서관의 규모와 봉사할 주민의 수에 따라 필요한 도서관확장의 기획, 이에 따른 비용의 예시, 특정 출판물을 구입할 수 없는 경우 대체 장서 등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이러한 업무를 기초로 80년대에 ZIB는 동독 전 지역의 공공도서관망을 조직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외에도 ZIB는 공공도서관을 위해 서평지인 문헌정보서비스지(Informationsdienst: ID)를 발간하여 공공도서관의 자료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 (Schurzig 1986). 이 ID는 국가 차원의 공공도서관 자료 선택을 위한 자료구성 지침서로 자료선택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ZIB에서 발간하는 ID는 ‘동독공공서관과 노조도서관 장서구성을 위한 정보’ 이외에도 공공도서관의 통속소설, 어린이도서, 실용전문서적을 위한 권장도서목록도 포함하였다. ID는 도서에 관한 단순한 정보제공 이외에 동독 공공도서관 분류표에 따른 분류번호와 목록 정보까지도 제공하였다. 또 ID에는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몇 권의 복본을 구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고사항,

간략한 도서해제, 학술적·예술적인 도서의 평론과 심지어는 최종 주문 날짜에 대한 정보까지도 제공되어 도서관의 업무 수행을 수월하게 하였다. 반면, 이러한 국가 차원의 자료선택 기준과 도서 출판시장의 제한은 대부분의 도서관이 동일 작품의 복본을 다량으로 구입하게 되는 단조로운 장서구성의 결과 또한 초래하였다.

동독에서는 출판시장이 국가로부터 철저히 통제를 받아왔다. 동독에서 출판된 책에는 국가의 인가와 검열의 흔적인 출판허가번호(Lizenznummer)가 인쇄되어 있다. 이러한 삼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독에서는 매년 인구 약 1,600만 명에 1억5천여 권의 도서가 출판되었다(Boersenverein 1991). 이러한 엄청난 출판량에도 불구하고 일반도서관이 서점을 통해 많은 복본을 주문할 경우, 도서를 구입할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 국가의 도서할당제도 때문에 일반 서점은 단지 소량의 도서를만 재고로 보관할 수밖에 없어 책이 일반 구매자의 수요에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Goehler 1998). 문화부 정책담당관들은 공공도서관의 원활한 자료 공급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우선정책을 실행해왔다. 공공도서관을 위한 특별조치는 라이프찌히 대형도서관도매상(Leipziger Kommissions- und Grossbuchhandel: LKG)을 통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 LKG는 1952년 설립된 국가의 대형독점도서도매상이다. 이 LKG는 1956년부터 ZIB의 ID를 근거로 공공도서관과 노조도서관을 위해 별도로 대출가능도서를 출판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도서에 관하여 제본까지 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목록정보 또한 제공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LKG가 특별히 공공도서관과 노조도서관을 위해 추가로 출판의 기능까지도 담당하였음을 의미하며, 이는 또한 국가가 어느 정도로 공공도서관과 노조도서관에 배려를 하였는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장서구성에도 깊이 관여했음을 의미한다.

2.4 통일 직전 동서독 공공도서관의 비교

'독서의 나라'와 '만인교육의 장'이라는 동독 공공도서관의 신화는 상반된 시각을 보여준다. 통일 직전인 1989년 동독에서는 6,073종의 신간이 출판되어 서독의 같은 해 65,980종 보다 1/10의 수준이었지만 출판량은 인구 1,600만 명당 1억 5천여 권이었다(김용민 외 2004). 물론 여기서 동독에서 발간되는 신간의 질에 대한 논의는 제외한다. 신기하게도 동독의 전문실용도서는 동독 주민의 실질적인 수요에 턱없이 부족했지만, 통속소설에서는 높

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민중과 세계(Volk & Welt)라는 출판사에서는 폭넓은 범위의 세계문학을 출판하였으며, 여기서 세계문학은 흔히 동독을 연상시키는 사회주의적 시각의 문학이 아니라 순수한 의미의 세계문학을 말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독의 각 도서관 자료는 LKG라는 국가의 대형독점도서도매상을 통해 분배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그로 인해 이용자는 일부 도서를 일반 서점에서는 구입할 수가 없어 도서관에서만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우는 결국 도서관 이용자 통계에도 반영되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 수와 독서량 증가의 성과를 국가가 의도적으로 조성하여 통계를 '미화'하였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 공공도서관에서는 근본적으로 도서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고, 특히 젊은 층 이용자에게는 독서 풍토를 조성하여 독서를 적극적으로 촉구하였다. 도서관계의 입장에서 보면, 그 동기에 상관없이 동독 공공도서관이 조직적인 이용자 서비스에 집중하여 서독에 비해 높은 도서관 이용률을 자랑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통일 전 1988년 동독에는 17,967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었던 반면, 서독에는 13,503개였다(Deutsche Bibliotheksstatistik 1989). 동독 공공도서관 중, 정규직에 의해 운영되는 중앙도서관은 1,130개, 분관도서관은 699개, 대출도서관 4,988개였으며, 겸직직원에 의해 운영되는 읍·면·동에는 6,246개와 1,136곳의 대출도서관이 있었고, 3,768개의 노조(노동자)도서관과 기업체도서관은 정규직과 겸직에 의해 유지되었다.

동독 공공도서관의 장서통계는 5,250만 권으로 나타났다(Bibliothekswesen 1989). 여기에 1,060만 권의 노조도서관 장서를 합하면 동독 주민 1명 당 평균 3.65권의 장서를 보인다. 이에 비해 같은 해 서독의 주민 당 장서량은 1.62권이다(Deutsche 1989).

동독 공공도서관의 장서구성을 보면 학술도서와 전문도서는 33.4%, 통속소설과 문학이 31.2, 어린이도서가 25.8%, 비도서 자료가 9.6%였다.

동독 공공도서관의 자료 구입비는 1988년에는 5,020만 동독 마르크, 노조도서관 자료구입 예산은 797만 마르크이다. 물론 동서독의 서로 다른 화폐가치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동독 주민 1인당 자료구입비는 3.52 마르크였다. 이에 반해 서독의 주민 1인당 자료 구입비는 2.10 서독마르크였다. 동독의 도서 가격은 서독보다 더

저렴했다고 추론할 때, 동독의 주민이 훨씬 더 많은 도서 구입비를 지출했음을 알 수 있다(Deutsche 1989).

1988년 481만 동독 주민이 대출한 도서는 10,919만 권이다. 이 중 공공도서관의 대출량은 9,454만 권이며, 노조도서관은 1,464만권이다. 같은 해 서독의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주민 6백만 명이 22,110만 권을 대출하였다. 동독공공도서관의 이용자가 이용한 자료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학술도서와 전문도서가 19.6%, 통속소설과 문학이 27.7%, 어린이도서가 26.5%, 비도서자료가 12.0%, 신문과 저널이 14.3%였다.

도서관 인력을 보면 동독 공공도서관은 6,817 정규직과 7,328명의 명예직(겸직)직원이 종사하였으며 여기에 노조도서관에는 1,300명의 정규직이 근무하였다. 반면 서독은 9,657명의 정규직직원이 종사하였다.

통일 직전인 1988년 동독 공공도서관 이용자는 29%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서독은 10% 남짓이었다(Deutsche 1989).

동서독 공공도서관 시스템을 비교해 볼 때 도서관의 일상적인 업무에서는 큰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 동독 공공도서관의 업무인 자료의 수집, 이용, 정리업무는 전국적으로 조직된 공공도서관망을 주축으로 한 장서구성에 따라 수행되었다. 또 동독 공공도서관의 인력이나 재정은 지역적으로 장서의 질적인 면에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동독의 환경에서는 양호한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동독에서도 도서관 전산화 작업은 80년대 말로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동독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의 열악한 공간문제, 자료공급 부족 상황, 자료의 이데올로기적인 규제, 도서관 인력난, 대출 자료의 서비스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모든 계층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기본 업무인 전인교육을 위한 서비스는 잘 수행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통일 후 동독 공공도서관

3.1 동독 공공도서관의 구조적 변화

동독시민의 평화로운 시위 후, 동독 국경이 개방되면서 동독정부는 전격 사퇴를 발표하였다. 동독인의 삶은 새 출발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고, 일상생활에서는 과거와 달리 적극적인 참여의식에 부풀어 있었지만 동시

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동반하였다. 1990년 10월 3일 헌법적 통일이 끝난 후에야 도서관계의 발전에 대한 확실한 방향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통일 반년 전 서독과 동독의 교육부와 주정부 교육부장관회의에서 동서독교육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위원회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었다. 도서관 분과위원회는 1990년 5월 동서독 도서관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독일 도서관연구소(Deutsche Bibliotheksinstitut: DBI)가 6월에 첫 회의를 소집하면서 서부터 독일 도서관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다. 도서관분과위원회는 독일 도서관문제를 6개 분야의 소그룹(Arbeitsgruppe: AG) 나누었으며, 그 첫 번째 AG가 공공도서관 분야였다(노문자 2002).

과거 동독 공공도서관을 담당하던 ZIB는 처음에는 서독의 DBI와 공동으로 작업을 했으나 점차적으로 DBI에게 권한을 넘겨주면서 해체되었다. 새로운 동독 공공도서관의 구상은 서독의 공공도서관을 기반으로 하였다. 통일 전까지 동독에서 중앙집중식 행정체제로 관리되고 지도되어왔던 문화시설은 통일 후에 연방체제의 주(州) 중심의 지방자치단체 행정체제 중심으로 제정이 운영되고 통일조약 제 35항에 명시되어 있다(Einigungsvertrag 1990). 과거 동독은 행정상 14개 지역(Bezirk)으로 나뉘어 관리되어왔으나 통일 후 14개 지역은 4개의 새로운 주(州)(Neue Bundeslaender)로 재통합되어 서독의 10개 주에 편입됨으로써 도서관에도 법적, 행정적인 구조 변화를 가져왔다.

통일 직후 독일 연방정부 산하 각 주의 자치권은 도서관관계까지 미치지 않고 운영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서독과는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던 동독 공공도서관 시스템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떠한 모델도 사전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독 공공도서관은 공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동독 공공도서관의 재원 할당이 정확한 연구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행되기도 했고, 또 공공도서관의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도서관인들은 극도의 불안에 휩싸였다(Burhfeind 1990).

1992년 말에야 동독의 새로운 주에서는 군 단위 분할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발표되었다. 군 단위가 과거보다 더 확장된 관계로 군립도서관의 수는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권한도 재조정되어야 했다. 주민 3,000명 내지 5,000명을 봉사하는 다수의 소규모 읍, 면 단위의 도서관들은 그들의 행정을 관할하는 관청에 소속되어야 했다. 이러한 행정단위의 개혁과 동시에, 지방

자치제의 관건인 재정자립에 관한 문제도 표면화되었다. 동독 공공도서관을 중앙에서 지휘하던 시스템은 해체되고, 그 기능은 각 주나 지역 단위의 도서관전문센터가 맡게 되었다. 또한 상위 그룹의 학술일반도서관이 담당했던 과제들은 각 주의 주립도서관이나 도서관전문센터에서 해결하도록 되었다. 새로운 도서관전문센터의 설립과 예산의 지원은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어려움에 처한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다.

동독 공공도서관을 총체적으로 관장하고 있었던 ZIB는 통일 후 독일의 공공도서관시스템을 과거 동독의 공공도서관시스템을 모델로 삼으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의도가 어떤 면에서는 동서독의 힘겨루기 양상으로까지 비춰지기도 했다. 동독의 관점에서 보면 서독의 도서관계는 전혀 변화하지 않고 오직 동독의 도서관계만 변화하여 서독의 도서관시스템에 새로이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각 주의 자치권이 철저하게 보장되어 있는 서독의 연방제도의 행정 체제에서는 동독 측의 주장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동독 공공도서관 구조개혁은 1/3의 지방도서관이 폐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공공도서관이 폐쇄되면서 자연히 중앙도서관의 기능도 축소되었다. 그 결과 동독 공공도서관은 그들의 업무를 과거처럼 명령 전달식에서 탈피하고 자유경쟁체제에 진입하여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전력을 집중시키기 시작하였다.

3.2 동독 공공도서관 장서의 변화

통일 후, 동독 공공도서관계의 당면과제는 그들의 장서에 변화를 주는 것이었다(Buhrfeind 1990). 대부분의 도서관은 자료의 유용성이 달라짐에 따라 시대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독-문학서적들을 폐기하였고, 일부 도서관은 서적들을 검토한 후 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들은 차후에 연구 자료로 삼기 위해 창고에 보관하였다.

국경 개방 이후, 동독 주민들에게도 도서와 학술잡지의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였고, 동독 공공도서관에는 그들이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에 대한 주문이 폭주하여 도서관은 일대의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개방 물결이 시작된 1989년부터 통일 후, 1991년 사이 동독 도서관은 평균 21% 이상 자료대출의 감소를 보였다(Was 1992). 이는 동독 주민들이 통일에 즈음하여 동독 공공도서관보다 국경 근처의 서독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결과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분단된 베를린시의 도서관에서 현

저하게 나타났다. 서베를린 사서의 경험에 의하면 동독의 이용자들은 최신 기술관련 서적, 컴퓨터와 언어, 동독에서 출판이 허용되지 않았던 작가의 작품, 과거의 베스트셀러, 사회과학과 철학 관련 주제 서적, 에로티즘 서적, 서독 각 도시의 지도, 비교도(秘教徒) 관련 서적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동독의 역사와 관련된 정치적 문헌과 동독에서 금서였던 자료에 대한 요구 또한 매우 높았다. 동독 주민들은 새로운 국가, 통일된 국가의 법과 책임에 관한 토론을 다루는 최신 법률관련 문헌에도 큰 관심을 보였고, 도서관에서는 통일을 통해 야기된 문제를 다루는 관련 자료도 준비해야 했다. 마약문제, 에이즈 관련 자료, 통일을 계기로 증가하는 실업과 이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관련 자료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Mart-Thomsen 1990).

통일 후 동독 공공도서관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했던 자료는 '민주주의의 배움'이라는 주제의 분야였다. 동독 주민은 민주주의의 기초인 자유 투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독 공공도서관은 민주주의에 관한 자료, 인민의회 선거프로그램, 시민운동에 대한 전단지, 정당프로그램, 그들에게는 생소한 지방자치에 관한 자료 등도 제공해야 했다(Huebner 1990). 이러한 사회, 정치적 변화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대표적인 도서관은 Erfurt의 정보상점(Infoladen)이었다. 이 정보상점은 법률, 보험, 세금, 소비자 문제, 산업생산성 평가, 생상품 가격의 비교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브로슈어, 일상생활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언제나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주소록, 상담관련 자료 등등을 제공하면서 미국의 'Community Information Service'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였다.

동독 공공도서관은 위와 같이 동독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또 과거 빈약한 출판종류로 인한 무더기 복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장서의 1/3정도를 선별하여 폐기하고 새로운 자료로 대체하였다. 폐기된 장서의 공백을 서방세계의 출판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서독에서 동독 공공도서관의 장서를 보충하기 위해 자료를 구입하는 업무를 관할 조직과 책임기구가 정해지지 않았고, 통일 후 자치단체의 자력으로는 도서관 장서를 보충할 재원을 충당할 수 없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동독 공공도서관의 설립을 위해 9000만 마르크(약 540억원)를 연방정부에 요청하였으나 화폐통합에 따른 문제로 이 예산은 즉시 조달되지 않았다(BR(D)DR 1990). 또한 화폐통합에 따른

혼란으로 도서관마다 다르게 예산이 집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동독 공공도서관은 점차 안정기에 접어들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는 도서관 이용자 증가로 이어져 도서관통계에 반영되었다. 긍정적인 이용자 통계는 동독 공공도서관의 장서 내용의 변화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그보다도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동독 주민의 다양한 정보의 요구에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활성화된 공공도서관은 주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기관임을 입증하였다 (Guennel 1993).

3.3 노조도서관(노동자도서관)의 폐쇄

동독은 노동할 권리를 완전히 실현한 세계였다. 취업이 가능한 인구는 거의 예외 없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고 정년까지 평생직장이 보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장은 곧 사회적 네트워크의 안착을 의미하였다. 동독의 기업은 노동법에 따라 직원의 거주는 물론, 복지와 문화 활동까지 책임을 졌다. 동독의 문화와 복지 분야에는 당연히 도서관이 포함되어 있다. 콤비나트(Kombinat)라고 불리는 대규모의 국영기업체에서는 수만에 이르는 직원들에게 광범위한 복지를 제공하였다. 일례로 Wolfen에 있는 필름공장은 직원과 직원의 자녀들을 위한 도서관, 어린이청소년 발레단, 각종 스포츠 동호회, 은행뿐만 아니라 목공소, 가죽공예방까지 가지고 있었다(김누리 2006). 이처럼 동독의 노동 현장에는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예외 없이 노조도서관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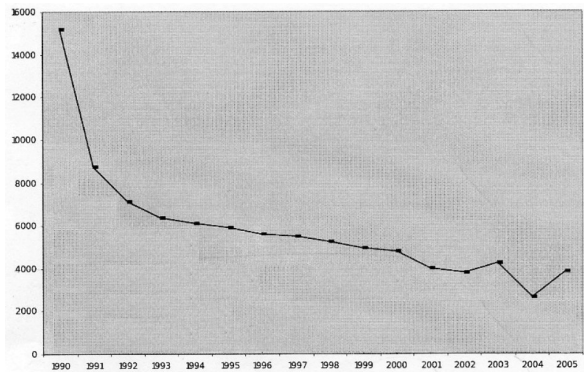
노조도서관은 노동자뿐 아니라 노동현장에 부속된 모든 구성원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동독 노조도서관은 전체 동독 공공도서관의 수 17,697에서 약 1/5(3,768)을 차지하였다. 통일 이전 1988년의 동독 공공도서관의 장서는 5,225만권이었고 노조도서관의 장서는 1,060만권으로 전체 공공도서관 장서의 약 1/5을 차지하였고, 장서 구입비나 이용자수 또한 평균 1/5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동독 공공도서관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노조도서관은 통일과 동시에 도서관측의 아무런 비판이나 대안도 없이 동독도서관의 지도에서 사라져버렸다. 단, 중앙노조도서관의 장서만은 학술도서로 분류되어 현재는 독일연방아카이브에 인계되었다.

3.4 통일 후 15년(1990-2005)간 그래프로 본 동독 공공도서관의 변화¹⁾

(1) 동독 공공도서관의 수

〈표 1〉에서와 같이 통일 후 1990년부터 동독 공공도서관의 수는 꾸준히 감소하였다. 독일도서관통계에는 모든 도서관이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2005년까지 약 3곳 중 한곳의 공공도서관이 폐쇄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도서관의 폐쇄가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표 1〉 동독 공공도서관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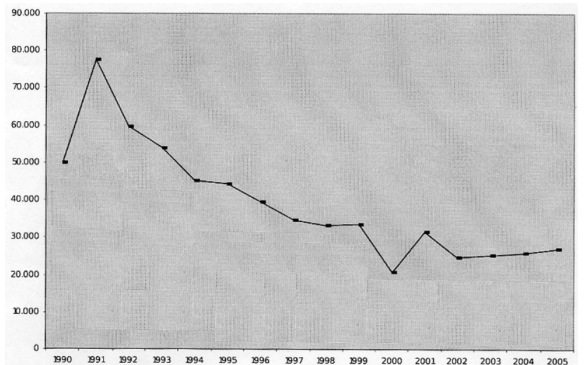


(2) 동독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예산

〈표 2〉에서와 같이 1991년까지 과거 동독지역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 예산은 78,748천 유로였으며 이 예산은 통일 직후 독일연방정부가 공공도서관의 장서 개발을 위해 지원한 금액이다. 그러나 그 다음해부터 장서구입 예

〈표 2〉 동독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예산

(단위 : 1000EU)



1) 지금까지 통일 후 독일도서관의 통계는 절대적인 정보가 아니다. 독일도서관통계(Deutsche Bibliotheksstatistik: DBS)에 1998년에는 82%, 2005년에는 77%만의 도서관이 참여하였다. 이 통계의 출처는 Statistische Jahrbuch-- fuer Bundesrepublik 1990-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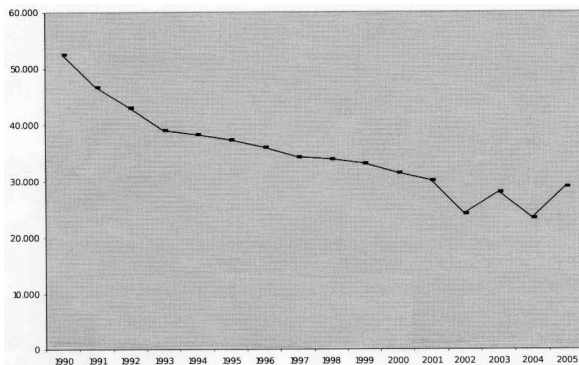
산은 급속하게 축소되었다. 그 결과 1990년에 비해 2005년의 자료구입 예산은 약 20,000천 유로로 감소하였다.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베를린시의 경우는 그 축소 폭이 더 심하여 1990년에 비해 자료구입 예산이 63%나 감소하였다. 이는 베를린은 기존 서베를린 공공도서관이 이미 동베를린 시민을 서비스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 동독 공공도서관의 장서량

〈표 3〉처럼 1990년 이래 과거 동독 공공도서관의 장서량은 약 44%로 줄어들었다. 1990년에는 약 5,250만 권이었던 동독 공공도서관의 장서는 2005년에 2,900만 권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44%의 장서량 감소는 90년대 초 적극적인 공공도서관의 폐쇄와 장서 폐기처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1991년과 1992년 사이에 동독 공공도서관의 장서 개발을 위해 특별 예산을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동독 공공도서관의 장서 감축이 실제로는 44%보다 훨씬 더 높았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지속적인 동독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예산의 감소는 통일 후 계속되는 도서, 정기간행물 가격의 상승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동시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서 내용의 수명이 짧아진 것도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표 3〉 동독 공공도서관의 장서량 (단위 :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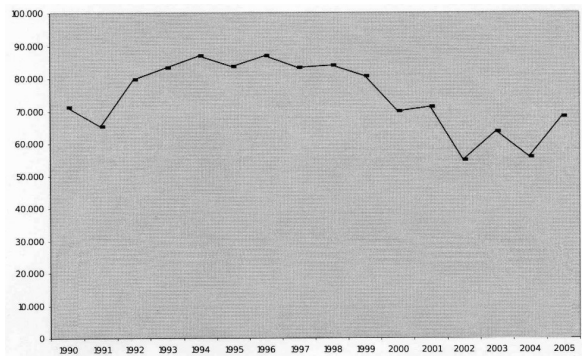
(4) 동독 공공도서관의 대출

수많은 동독 공공도서관의 폐쇄와 감소한 장서량에도 불구하고 1990년부터 도서 대출량은 통일 직후에는 감소했으나 안정기에 접어들면서는 〈표 4〉에서처럼 꾸준히 약간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2000년대부터는 대출량의 감소는 약 5% 미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수많은 도서관의 폐쇄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도서관들은 장서구성에 변화를 주었고 동시에 신속하게 오래된 장서를 폐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동베를린 공공도서관의 대출은 다른 지역의 공공도서관보다 감소의 폭이 컸다.

이는 역시 기존의 서베를린 공공도서관을 동독의 주민들이 이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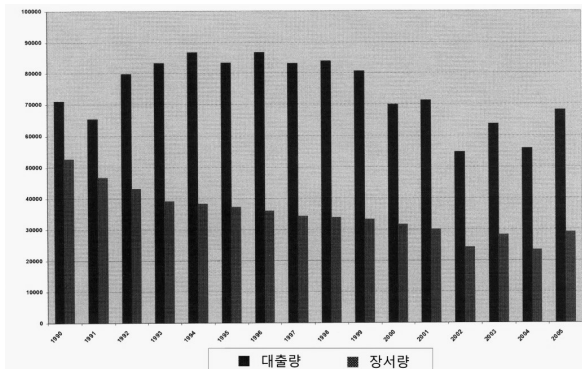
〈표 4〉 동독 공공도서관의 대출 (단위 : 1000)



(5) 도서관 장서량과 대출과의 관계

〈표 5〉의 그래프에서 특이한 사실은 동독 공공도서관의 장서량은 꾸준한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자료 대출량은 오히려 더 증가하여 약 8,000천만 건에 이르며, 이 수치는 90년대 말까지 큰 변화가 없이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 하나는 통일 후 동독 공공도서관이 장서를 대량으로 교체하여 효율적인 장서 구성을 하였고, 두 번째는 통일 후, 동독 주민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직업과 계속교육, 평생교육을 위해 필요한 자료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을 의미한다.

〈표 5〉 도서관 장서량과 대출과의 관계 (단위 : 1000)



공공도서관의 폐쇄 이외에도 수많은 학교가 폐쇄되었다. 폐교는 자연히 학교도서관의 폐쇄로 이어졌다. 작센주에서만 600개의 학교가 폐교되었으며, 이러한 폐교의 움직임은 동독 전체로 확산되었다(정용길 2009). 학교도서관의 폐쇄는 결과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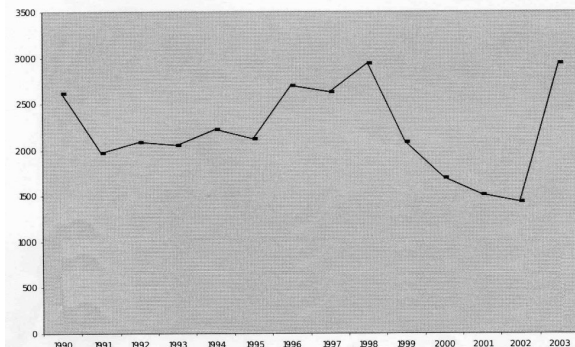
2000년부터 장서량의 감소로 인해 대출양도 줄어들고 있다. 이는 장서 구입 예산의 감소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90년대 중반보다 가속화된 자료내용의 노후화에 따른 현상이기도 하다. 공공도서관은 어느 정도까지는 자료 구입 예산의 감소를 허용할 수 있지만 장서량의 감소는 역시 자료의 대출량과 함께 변화함을 보여준다.

(6) 적극적인 동독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

과거 동독에서 전 국민 대비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1988년에 29%에 달하였다. 2005년 동독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8.3%이다. 이 수치는 독일 전체 공공도서관 이용률 10.9%보다 더 낮은 것이다. 이는 그 사이 동독 주민의 생활 패턴이 서독과 거의 비슷해졌으며, 그에 따라 동독 주민의 독서 행태도 서독과 상당히 비슷해졌음을 의미한다.

동독 공공도서관의 약 1/3 이상이 폐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이용자 수는 <표 6>에서 보여주듯이 1990년 2,615천명에서 2005년에는 1,396천명으로 거의 절반으로 집계 되었다. 이 결과는 여러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독이용자의 자료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을 의미한다.

<표 6> 적극적인 동독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 (단위 :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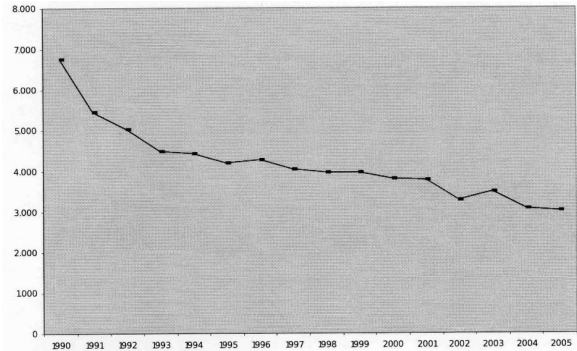


(7) 동독 공공도서관 직원 수

1990년부터 시작된 동독 공공도서관의 폐쇄와 함께 시

작된 도서관 직원의 감소는 65%에 달했다. <표 7>에서 보여주듯이 1990년 동독 공공도서관 정규직 직원은 6,758명이었지만 2005년에는 2,363명으로 줄어들었다. 과거 동독 공공도서관 인력구조의 특징은 겸직(명예직)직원이 정규직 직원의 비율을 상회한 것이다. 2005년 동독 공공도서관 겸직직원과 정규직 직원의 비율은 1,015: 2,363으로 겸직직원이 전체의 42%를 차지하였고, 같은 해 서독 공공도서관의 겸직과 정규직직원은 44,836: 8,466으로 겸직직원이 전체 직원의 84%를 차지하였다.

<표 7> 동독 공공도서관 직원 수



종합적으로 볼 때 1990년과 2005년 사이 동독 공공도서관 전체 직원과 도서관은 35%만이 남아있었다. 이 살아남은 35%의 직원과 도서관이 남아있는 장서 60%로 꾸준한 대출량을 기록한 사실은 겸직직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4. 동독 공공도서관의 정착

4.1 동독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방향 모색과 가치관의 변화

통독 후 동독 공공도서관은 두 가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였다. 정치와 문화의 방향이 새롭게 제시되어 이에 따른 변화에 대응해야 했고 동시에 동독 공공도서관에 새로운 정보기술이 도입되고 동독도서관 직원이 서독도서관으로 이동하면서 동독의 사서들은 완전히 새로운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동독 공공도서관 시스템의 붕괴가 가져온 가장 중대한 결과는 대대적인 도서관 폐쇄다. 도서관 폐쇄의 첫 물결은 통독 직후에 이미 시작되었으나 이는 서독 공공

도서관법이 동독 공공도서관에 적용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도서관 폐쇄의 두 번째 물결은 9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밀려오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거침없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 자치제의 예산이 적자를 기록하며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동독은 소규모의 마을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도서관망을 갖추고 있었지만 통일 후에는 지방자치제하의 빠른 예산의 압력으로 인해 가장 시급한 것부터 새롭게 우선순위를 매겨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도서관 역량의 집중화는 일차적으로 도시에서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공공도서관이 설립되기도 하고 변화된 과제에 발맞추어 보수 및 확장 공사가 진행된 곳도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연방 정부의 예산이 통일 후 몇 년 동안 동독 공공도서관으로 유입됨으로서 가능하였다. 그 결과 과거의 수많은 지역도서관들이 지금도 여전히 지방 주민들에게 광범위하게 문학서적을 공급하고 있다.

동독 공공도서관 운영의 근본적인 변화의 원인은 과거처럼 도서관에 대한 국정 지표가 단절되면서 전문적인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었다. 동독 공공도서관을 새로 정립하는 데 있어 한 때 전문적인 지도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과거의 도시 및 지역 도서관들은 거의 전적으로 대도시적 기능에만 주력하였다(Staatliche Fach 1996). 과거의 행정 관할 체계가 바뀌면서 수많은 도서관들은 지역 내에서의 혹은 지역 간의 주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단시간 안에 서독의 연방제로 편입되면서 기존의 도서관 체계를 최대한 유지해 보려는 동독 중앙도서관 행정부의 노력은 급격한 정치적 변화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다(Einordnung 1990).

독일 도서관문제를 주도했던 DBI는 변화된 환경에서 동독 공공도서관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과제도 확정지었다. DBI의 우선과제는 동독 공공도서관을 위한 국가도서관전담기구(Staatliche Fachstelle)를 변화된 조건에서 적절하게 수용하고, 이를 위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국가도서관전담기구가 설립됨으로써 각 주(州)들은 공공도서관에 대한 각자의 책임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Bibliothek 1993). 도서관전담기구의 주요 과제는 경쟁력 있는 공공도서관을 설립하여 현대적이고 이용자 중심의 정보-, 교육-, 문화센터로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효율적이고 지역 중심적인 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도서관전담기구의 초기 몇 년 동안의 활동은 주로 기존의 공공도서관 중에서 재정적으로 혹은 내용적으로

조언이 필요한 부분의 개조와 보수에 집중되었다. 이와 함께 광범위한 재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동독 출신의 도서관직원들은 과거 국가 주도의 명령전달식 시스템에서 경쟁위주의 자본주의 시스템의 전환으로 인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도서관과 시스템을 '습득해야' 했다.

통독 후 동독 공공도서관의 또 다른 변화는 가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 문화적 환경과 문화적 가치의 변화에 기인한다(Lux 1998). 과거 동독 공공도서관들은 그들의 존재 가치를 독일 노동자들의 문화와 인민교육운동을 통해 확인하였다. 즉, 동독 공공도서관은 그들의 기능 중 교육 부분을 중요시했을 뿐 아니라, 주요목표로 삼았다. 동독 공공도서관은 만인을 위한 교육이라는 이상을 지탱하는 주요한 기둥의 하나였다. 그러나 통일 후 도서관 업무는 전혀 다른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다. 지역공동체 속에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과거처럼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후기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변화 속에서 공공도서관이 담당해야 하는 수많은 문화적 기능은 지금까지 주 정부의 정책 속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도서관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공공도서관의 가치를 창출하고 동시에 엄청난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현실은 독일만의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동독 공공도서관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은 그들 자체 도서관의 독자성을 갖게 된 것 외에 그들의 변화된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회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자격요건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재정적 재원에 의존하게 되자 도서관은 갑작스럽게 공적 요구에 적합한 재정지출을 하였는지 증명하고 토론을 통하여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미래의 도서관은 경제적 기준에 의해 평가된다. 이러한 사실은 동독 공공도서관이 과거와 전혀 다르게 지역사회 이용자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해야함을 의미한다.

인구저밀도 지역을 벗어난 도시지향적인 도서관의 발전은 완전히 새로운 성장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공공도서관이라는 장소가 국가발전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지역공동체에서 공공도서관은 흥미로운 대상이 되었다. 공공도서관은 매력적인 문화프로그램이나 사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집회를 위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교류의

장이 되고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기여도 할 수 있다.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공공도서관은 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맡을 수 있고, 소외 지역의 문화 공급지가 될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자신의 지역을 알리는 적극적인 기관이 될 수 있다. 사회에서 인식하는 이러한 공공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도서관들이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그들 스스로 발전 전략을 개발하는데서 출발한다. 오늘날 좋은 도서관이란 외부에 자신을 얼마나 적절하게 홍보할 수 있느냐에 평가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평가 척도는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대단히 모순적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 '좋은 도서관서비스'란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도서관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모두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도서관이 왜 필요한가와 같은 질문들로 인해 오늘날의 도서관들은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시켜야 하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동반자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공동체의 문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세련된 방식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의 직업이 보장되어 수십 년 동안 독일연방 공화국의 사회적 부를 유지해왔고 각자의 직업이 각 개인의 정체성을 대변했던 시간들은 이미 과거의 유산이 되어버렸다. 앞으로 도서관은 다문화사회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 국민의 노령화, 청소년들의 방향성 상실 등등의 향후에 지속적으로 토론되어야 할 중요한 사회적 주제들을 다루어야 한다. 도서관은 지역공동체의 소통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중대한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그 중요성조차 간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독일은 통일 후 초기의 "독일-독일 간의 차이를 좁히기"에 급급하여 글로벌화 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변화된 조건들에 맞춰 동독 공공도서관을 발전시켜야 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해 버렸다(Thiers 1997). 현재는 도서관들마다 각자의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정보 및 지식 사회의 요구와 가치에 맞는 길을 모색 중이다.

통일 초기의 동독 공공도서관들이 서독의 구조에 적응하느라 시간을 소비했다고 보면, 오늘날의 그들은 사회 전체의 변화에 발맞춰 가야할 때가 되었다. 동독 공공도서관은 정치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재적응의 시기를 경험하였다. 현재의 동독 공공도서관에는 전자 미디어

어와 정보기술이 도입되어 그들에게 엄청난 발전 가능성을 가져다주었다. 오늘날 지식의 성배를 지키는 것은 당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패스워드이다(Kasch 2007).

통일 후 동독 공공도서관들은 이용자들이 최첨단의 지식과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독 후 동독 공공도서관 구조 변화의 시기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환점으로 이용되고 있다. 개인용 컴퓨터의 구입, 인터넷 회선의 설치, 데이터 백업 및 사용 저작권 구비, 새로운 미디어의 구매를 통한 새로운 정보망의 구축은 전혀 새로운 지식의 세계를 열어주었다. 그 결과 동독 공공도서관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도서관자동화시스템의 도입으로 각 주 단위의 온라인도서관망을 통해 온라인분담목록이 가능해져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수월해졌으며 이는 곧 이용자의 증가와 직결되었다(Entwicklung 1995).

한 때 독일 공공도서관의 기술 발전에서 소외되었던 동독 공공도서관들은 이제 그보다 더 앞서나가고 있다. 동독 공공도서관은 기존의 시스템과의 호환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도서관의 자동화는 근본부터 계획되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도서관 기술의 최신성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협력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공동의 해결책이나 적어도 서로 호환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4.2 글로벌화에 따른 동독 공공도서관의 정체성

동독 공공도서관은 통일 후 엄청난 발전의 과정을 겪었다.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이렇게 광범위한 사회적 격동을 겪으면서 그들은 전혀 새로운 조건 하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했다. 동시에 그들은 앞 장에서 묘사된 것과 같은 체제와 업무 방식에서 엄청난 변화를 견뎌내었다. 이와 동시에 독일사회 전체는 곧이어 닥쳐온 변화를 받아들여야 했는데 그 변화의 중심에는 '글로벌화'가 있었다. 지구경제는 경제활동에 대한 민족국가의 개입을 어렵게 한다. 글로벌화를 통해 세계 모든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변화가 왔으며 엄청난 사회 변화의 가속화와 동시에 벌어진 경제 위기는 가치 체계의 변화를 초래하여 더 이상 한 국가의 정체성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Kasch 2007).

현재로서는 기준이 될 만한 미래 사회의 모델을 제시

하는 사회학 이론을 찾을 수 없다. 대신 사회는 그 자신의 가치를 기술 발전의 정도에 따라 정의하고 있다. 미래 사회에 대한 마법의 주문은 융통성에 있을 것이다. 수백 년 동안 절대적 가치로 여겨졌던 삶의 방식, 직업관, 남녀의 역할 등에 대한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후기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은 전혀 새로운 가치관과 노동구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동독 공공도서관들은 집단의 가치로 인식되어왔던 직업과 교육의 구조에서 개인적으로 조직된 학습 구조로 그들의 서비스 개념을 바꾸어야 했다(Transformation 2002).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 동독 공공도서관이 수행해왔던 노동자 중심의 문화와 교육의 사회적 의무 또한 완전히 새로 정의되어야 함을 의미하였다. 지금까지 한 국가와 세계에서 인정되었던 정체성은 그 모든 가치가 국제금융 및 기술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글로벌한 세계 속에서 사라져 버렸다. 따라서 공동의 국가라는 독일 내부적 정체성을 찾는 과정은 글로벌 사회의 압박감 때문에 진행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반면 이렇게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치 공간'이 장벽이 무너진 이후의 동독 공공도서관에게 엄청난 가능성의 지평을 열린 것도 사실이다.

오늘날 정보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학습과 직업생활이 이루어지던 기존의 장소가 사라짐을 의미한다. 정보기술은 수많은 일들이 더 이상 특정한 장소의 공장이나 사무실에 얽매이지 않게 만들고 있다. 반드시 노동자가 기계나 책상 앞에서 작업해야 할 필요도 없고, 모두 동시에 근무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공공도서관에도 영향을 주어 개인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이 서로 뒤섞여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들 또한 다른 기능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도서관은 여가 시간 외에 학습과 노동 시간에도 방문하는 곳으로 자리 잡았다. 도서관의 정보제공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디지털 정보까지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삶은 각 개인에게조차 전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의무인 평생교육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평생 학습 - 정보사회의 기본강령으로서 그 핵심은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기반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와 경제"(Nora/Minc)이다 - 이야말로 한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의 중요한 전제가 되었다.

도서관은 지식을 수집하여 모든 계층의 사회구성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라는 근본적인 개념을 넘어서야 한다. 현대사회의 중앙집권적 커

뮤니케이션 수단이 되어버린 인터넷에 의해 쏟아져 들어온 정보의 홍수는 이제 더 이상 한 개인에 의해 관리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고 이러한 과정에서 공공도서관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요구된다. 도서관은 정보화 능력을 갖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용자가 주체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서관은 특정한 기본지식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은 중요한 민주적 기본 가치 - 지식과 교육의 기회 균등 및 공공 생활에의 참여 - 를 보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독일 전체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관찰해보면 정보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의 의미가 전적으로 간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을 값싼 도서관의 대용품으로 인식하여 재정 축소 조치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1999년 10월 유럽 의회와 30개국 유럽의 정치인이 "코펜하겐 선언"을 통해 정보화 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촉구하였다(Something 1999). 예를 들어 UNESCO의 "공공 도서관 선언"이나 "공공도서관을 위한 IFLA 지침" 등과 같이 공공도서관의 기본 입장을 밝힌 다양한 문서를 통해 유럽의 정치가들은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민주주의와 시민권
- 경제적 사회적 발전
- 평생 학습
-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

이 외에도 각 나라 정부에게 효과적인 도서관 업무를 위해 구조적이고 경제적인 조건을 보장하도록 촉구하였다.

5. 결론 및 제언

장벽이 무너진 세계는 모든 분야에서 불확실성을 초래하였다. 독일의 통일을 흔히 흡수통일이라 부른다. 통일과 더불어 동독이 자랑하던 동독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망은 서독의 행정체계로의 흡수·개편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약 1/3 이상의 동독 공공도서관이 폐쇄되었고 남아있는 도서관에서도 장서개발의 기준이 변함으로써 많은 장서들은 폐

기 또는 교체되었다. 특히 사회주의 유지체제와 미래 노동자사회를 이끌어갈 주체를 봉사했던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급격한 감소와 노동자도서관의 폐쇄는 동독도서관의 지도를 바꾸어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통일 후 글로벌사회에서 동독 공공도서관은 과거 사회주의국가 주도의 명령 전달식 도서관 운영에서 탈피하여 자본주의 경쟁구조의 지방자치제 자율식 도서관 운영방법을 습득해야만 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동독 공공도서관은 그들의 역량을 집중시키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동시에 새로운 도서관의 정체성을 찾게 되었다.

동독 공공도서관은 처음 몇 년간은 혼란을 경험하였고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재적응의 시기를 보내며 업무의 효율성도 개선되었다. 그 결과, 주 단위의 전국 도서관온라인망을 통한 신속한 자료에의 접근은 이용자를 다시 도서관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하고 있다. 한때 독일 공공도서관의 기술 발전에서 소외되었던 동독 공공도서관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앞서가고 있는 곳도 많아졌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도서관이 현대사회의 중앙집권적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되어버린 인터넷의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공공도서관은 정보화 능력을 갖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용자가 주체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독일 통일이 여전히 진행 중이듯이 도서관 역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40년 이상을 상이한 체제에 적응된 후, 갑작스럽게 재결합되었을 때의 심리적·문화적인 격차를 단기간에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한운석 2003). 동독인들은 자신들은 '2등시민'이란 열등감이 내적통일을 저해하는 요소라고도 보고된 바 있다(이태욱 2001).

독일은 통일 전에도 국가서지를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였다. 서독의 국가서지에는 동독의 출판정보가 기재되었다. 우리는 북한의 도서관에 관한 정보가 매우 한정되어 있고, 또 출판시장에 관한 정보는 거의 전무하다. 남북 간의 문화교류는 민간단체이든 기관 중심이든 언제나 정치적인 제약아래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근래에 독일 괴테문화원이 평양에 독일 기술서적 중심의 도서관 건립을 계기로 독일 괴테문화원 원장과 독일사서가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도서관에 관한 약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또 한양대학교에서는 김책공과대학에 컴퓨터 등 여러 가지 기자재를 지원을 함으로써 북한의 대학도서관에 관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우리 도서관계가 통일 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 도서관간의 교류의 물꼬를 터야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위의 예와 같이 극히 제한적인 방법밖에 없는 실정이다. 통일부의 북한자료센터를 중심으로 북한도서관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여 한국도서관협회의 남북도서관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비하는 것이 남북한 도서관계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참고 문헌】

- 김누리 편. 2006. 『머릿속의 장벽』. 서울: 한울.
- 김용민, 이영임, 최경은, 김경식, 이원경. 2004. 『통일 이후 독일의 문화 통합 과정』. 서울: 연세대 출판부(문화연구: 07).
- 노문자. 2002.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동독공공도서관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2): 97-126.
- 송승섭. 2009. 『북한도서관의 이해』.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이태욱. 2001. 『두 개의 독일: 독일통일과 경제·사회적 부담』.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정용길. 2009. 『독일 1990년 10월 3 일』.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 한운석. 2003.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과거』. 서울: 신성원.
- Bibliotheken '93, 1993: Struktur, Aufgaben, Position.* Hrsg Bundesvereinigung Deutscher Bibliotheksverbaende. Berlin: DBV.
- Das Bibliothekswesen in der DDR, Jahresbericht 1988, 1989.* Berlin: ZIB.
- Boersenverein des deutschen Buchhandels. Ffa. M. 1991 *Statistisches Jahrbuch der BRD.* Hrsg. Statistische Bundesamt. Wiesbaden: Statistische Bundesamt.
- BR(D)DR+ekz. 1990. *ekz_report.* 1-4(o.S.)
- Burhfeind, A. 1990. Derweit herrscht "Vakuum." *Boersenblatt* 77, September 25. 2908-2909.
- Deutsche Bibliotheksstatistik.* 1988, 1989. Berlin: DBI.
- Deutsche Bibliotheksstatistik, 2005. <http://www.hbz.de>
- Einigungsvertrag und Wahlvertrag.* 1990. BRD:DDR. Muenchen: Beck.
- Einordnung der oeffentlichen Bibliotheken in eine veraenderte Verwaltungsstruktur in der DDR.*

1990. Hrsg. v. ZIB . Berlin: ZIB.
- Entwicklung der Oeffentlichen Bibliotheken in neuen Bundeslaendern. 1995. *Bibliothek*, 19: 295-321.
- Goehler, H. 1998. *Literaturversorgung und Bestandaufbau in oeffentlichen Bibliotheken in der DDR*. Bad Honnef: Bock +Herchen.
- Guennel, P. 1993. Oeffentliche Bibliothek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0-1992-eine Uebersicht. *Bibliotheksdienst*, 27(12): 1874-1882.
- Huebner, G. 1990. Staatliche Allgemeinbibliotheken in Umwandlung zu kommunalen oeffentlichen Bibliotheken. *Der Bibliothekar*, 44(9): 518-522.
- Kasch, P. 2007. *Der Aufbau Oeffentlichen Bibliotheken nach 1989 in der Neuen Bundeslaender*. Berlin: Humboldt Univ.
- Lux, C. 1998. Probleme beim Aufbau einer neuen Identitaet in ostdeutschen Bibliotheken. [2007.4.5]. <<http://www.ifla.org/IV/ifla64/140-157g.htm>>.
- Mahrt-Thomsen, A. 1990. West-Berliner Bibliotheken: der Nachhohlbedarf der DDR-Buerger ist enorm *BuB*, 41(4): 312-313.
- Marks, E. 1987. *Die Entwicklung des Bibliothekswesen der DDR*. Leipzig: Bibliographische Institut.
- Maewinski, K. 1990. Zur Entwicklung und zum Stand des Bibliothekswesen in der DDR *Bibliotheksdienst*, 24(7): 890-899.
- Nora/Minc: Informationsgesellschaft. [2007.15.4]. <<http://www.wikipedia.org/wiki/informationsgesellschaft>>.
- Schurzig, E. 1986. *Die Bestandlichtlinie fuer die Jahre 1986-1990 und ihre Anwendungen in den Allgemeinbibliotheken*. Berlin: ZIB.
- Something for everyone. Public libraries and information society. *Bibliotheksdienst*, 33, 2100-2102.
- Statistisches Jahrbuch... fuer BRD, 1990-2003*. Hrsg. v. Statistische Bundesamt. Wiesbaden: Bundesamt.
- Thiers, W. 2000. Zukunft der Kulturlandschaft Ost. <<http://www.kulturforen.de/servlet/PB/show/1677797/Rede%20Thiers>>.
- Transformation in der oistdeutschen Bildungslandschaft*. 2002 Hrsg. v. Doebert... [et al]. Oplanden: Leske +Birdrich.
- Was tut sich bei den Oeffentlichen Bibliotheken? 1992. *Biliotheksdienst*, 26(6): 869-880.